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

잠언25:6-13, 고전16:13-18

최정웅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기를 바란다. 잠언서를 묵상하는 중에 25.27장을 토대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사실 그 모든 만남 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만남, 주님과 만남은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새롭게 하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의 만남이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아직도 못 만났는가. 주님 만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순간적으로 완전히 생이 바뀌었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기를 바란다. 사도행전 9장에 핍박자였던 지성인이었지만 갈등 속에 있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주님과 이 만남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는다. 사도행전의 그 전도운동도 결국에는 만남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다. 단 한 번의 만남이 아프리카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되었다. 수년 전 일인데, 에디오피아 왕이 영락교회를 방문하면서 자신이 솔로몬왕의 145대 후손이라고 말했다. 자기 할머니는 결국에는 솔로몬과 만났던 에디오피아 간대국 여왕이었다고 말했다. 이렇듯이 한 번의 만남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9장에 방금 말씀드린 사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중직자를 만나서 없었다면 전도제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세계복음화에 예수님 다음으로 이름이 화자되는 인물이 될 수 있었겠는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복음화의 교도부가 된다. 야손을 만나서 데살로니가 복음화의 교도부가 된다.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복음화와 초대교회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만남이라는 단어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냥 만남이 아니다. 노사연씨가 부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노래가 있는데, 정말 우연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아는 7명의 램넛트가 전부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 요셉이 보디발을 만났고, 요셉이 간수를 만났고, 장관과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전부 한 가문을 살리고 감옥, 한 나라를, 세계를 살리는 그런 만남들이었다. 나와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되는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것이 있다. '나는 정말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전도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가.' 그 질문을 계속하다보면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축복을 알게 된다. 나와 관련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을 전도자의 삶 속에서 찾아내어 내 것으로 삼는 축복의 날, 주님이 되기를 축복한다.

1. 우리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세 가지 계획을 찾게 되기를 축복한다.

(1)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 속에는 복음 증거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만남이다. 우리는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만남 속에는 복음 받아야 할 대상자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 에스겔 3:16-21절을 보면 '내가 악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악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다. '내가 의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의로운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악인에서부터 의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 만났을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바울은 롬1:14에서 자신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모두 빛진 자라고 말한다. '나는 빛진 자다.' 무슨 빛인가. 롬1:15에서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할 빛을 쬐다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빛을 쬐는 것이다. 자기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만남을 통해서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라는 것이다. 롬 1:16장에서 바울은 고백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만남 속에서 전달하게 되어야 한다. 그 전달자가 되기를 축복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사실은 멸망 속에 있기 때문이다. 문제 속에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롬3:23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다. 요8:44에, 이런 사람의 신분은 너희 아버지가 낳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저들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눅16:19-31에서 지옥 배겨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 사단, 지옥이라는 세 저주의 문제를 안

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릴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신학자의 이름은 있었지만, 그 분이 늘 기도하는데 '너 왜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말했다니 '내가 히틀러를 너에게 만나게 해주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히틀러와 직면할 수 있던 시간이 5분 있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말하기를 단 5분의 만나는 시간이 있더라도 복음을 말하라. 그것이 전도자가 할 일이다.

롬8:2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만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일 3:8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라 요14:6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돌아 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이 듣기를 바라신다.

딤후2:4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모든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다. 아직 우리교회에 전도에 미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너는 그것을 원하는데, 그런 장로님을 원하는데 그런 분이 잘 안 보인다. 다른 것만 계속 보고 있다.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모든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복한다. 요즘 계속해서 뜨고 있다. 전도자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똑같이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했고, 그들이 어떻게 변했으며 그 기쁨이 얼마나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난다. 그런 제자가 필요한 때이다.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한다.

(2) 비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첫 번째로 전도의 계획으로 계획하신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라는 것이다. 화를 돌리지 말고, 멸망 주지 말고, 죽음을 주지 말고, 절망과 낙심을 주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치유해주라는 것이다.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은 오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우리는 늘 이런 시각으로 본다. 우리는 다시 눈을 떠서 그 사람이 얼마나 창3장에서 상처를 입었는지, 창6장에서 네피림이 될 정도로 짓밟혔는지, 그들이 우리에게 보고 있는 성공으로 우물시킴으로써 우리를 비천하게 만드는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줘야 한다. 상처 때문에 복음을 붙잡지 못하는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붙잡게 되었고 그 복음이 날 어떻게 살렸으며,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도이다. 사람들은 자기 동기가 너무 충만해서 동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지 못한다. 이것을 뒤집으라는 것이다. 합정, 울무, 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치유이다. 열쇠가 무엇인가. 단 하나, 오직 예수. 유일하다. 그리스도가 오직 되게 해 주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다. 그래서 갈2:20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는 것이 치유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긴 여행 중에 성경 본문 중에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처럼 시원한 소식을 들었다. 그 교회도 참사랑교회인데 권사님이 불구자 남편을 모셔서 교회로 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그분에게 아들이 셋 있는데, 그 중 둘째 아들이 이번엔 결혼을 했는데 복음 가진 아내를 맞은 것이다. 이 분이 들어오더니 이 가정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복음 가진 여자덕분에 남편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복음을 말하니까 가는 곳마다 목사님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율법에 찌들었던 할머니들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여러 곳에서 서로 오라고 한다. 이 분이 복음을 말하니까 동기를 가운데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그 메시지를 나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동기가 되어 '당신이 설교해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각 복음을 듣는다는 것, 가진 다는 것, 체험한다는 것,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분의 큰 동서는 미국사람이다. 그런데 복음가진 동서를 너무 좋아한다고 한다. 시숙은 큰 형인데도 자기 동생의 부인, 제수씨의 말은 100% 믿는다는 것이다. 정말 훌륭한 여자가 들어오면 복덩이가 된다더니, 이 여인은 그 가문의 복덩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내 가족,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더라. 우리 가족들이 복음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는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나머지 부분도 다 살아나게 되어있다. 마음과 육신이 병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남 속에서 치유의 포인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남에 비밀이 있다는 것이다.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비밀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타나면 단체, 그 모임 자체가 불인해진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화기애애해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이제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으며,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며, 어떤 사람으로 되어 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보는 축복의 주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사람만나면서 살아야 되니까. 오늘 한 램넛트가 '목사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 하면서 밝은 얼굴로 이야기한다. 내가 직장에 들어간 만큼 행복해서 '참 잘했다.' 말했다. 직장 살리는 램넛트되기를 축복한다. '이 직장은 내가 갔기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질 거야. 모두가 치유를 받을 거야.'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한다.

(3)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는 현장을 정

복하라는 것이다. 정복이라고 하면 군인이 와서 찢어 죽이고 군화로 짓밟고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패권주의는 버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 살리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고 치유하다보면 내가 어느 날 현장의 주역에 되어있다.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있다. 그것이 바로 요셉 아닌가. 7명의 램네프트는 가는 곳마다 현장의 주역이 되었다. 너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열쇠, 여쇄를 꺼내 주면서 '네 만대로 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한다. 네가 바로 요셉이 되어라 라는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정말 내가 주님만 제대로 모신다면, 주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 있다면 된다는 것이다. 너는 말쑥꾸러기가 되지 말고 치유자가 되고 그 현장을 아름다운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울은 풍랑을 만났다.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이 되었다. 바울이 이야기했다. 조금 더 기다리다가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위험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백부장의 말을 의지하고 '감옥수 주제에, 가만히 있어!' 한 것이다. 그러나 다 죽게 되었다.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바울이 나와서 이야기했다.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쨌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생명에 아무 지장 없고 배만 파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도 여러분의 생명이 지장이 없다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결국에는 바울이 배주인이 되고 선장이 되고, 병사의 장이 된 것이 아닌가. 주인공이 되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하나님은 만남 속에서 준비해왔으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라는 것이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다. 내가 굉장한 노력, 힘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도 구원받았으니 나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무디를 보면서 웃으면서 '당신의 열쇠, 자원은 마음이 귀하지만' 말하지 못한 것이다. '너는 초등학교만 나왔잖아. 누구를 가르칠라고. 문자로 모르면서' 하지는 못하고 안 된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퇴짜를 몇 번 받았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하나님이며 나도 어린이들을 살리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나에게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목사님이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이다. 그는 교회당이 아니라 거리에서 3천명의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도 무디 institute가 시카고에 있다. 지금은 신학교가 생겼지만, 그의 뜻을 따른 신학교가 아니고 성경연구기관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능력, 신분의 문제가 아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스도로 결단 난, 답이 난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실은 그것만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만나는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다.

2.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보면서 이번 주에 찾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

(1)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9가지 포인트에 있다는 것이다. 9가지 여유, 9가지 포인트. 만남을 살리는 열쇠는 위, 아래, 옆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뒷사람, 아랫사람, 옆의 사람을 그래야지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이다. 뒷사람 섬기고, 아랫사람을 잘 돌보아주고 동료를 잘 섬기는 것이 살리는 것 아닌가. 그것을 배려라고 우리는 배웠다. 그러면서 넓이 높고 깊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이해라고 한다. 배려와 더불어 이해가 있게 되면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만남 속에서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을 폭 넓게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을 볼 때 여유가 생기고 오해를 하지 않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는 답을 쉽게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때 봐야 아는 것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인 것이다. 이것은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과거를 치유하고 오늘을 살리면 그 사람의 미래가 열리게, 보이게 된다. 이것을 가지고 만남을 누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최고의 열매가 제자이다. 바울이 이 모든 만남을 이렇게 누렸더니 제자를 세우는 열매를 계속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제자가 열매로 남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믿음의 제자,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 그렇다면 이 9가지 포인트를 두고 잠25장과 27장을 보면 쉽게 이해하게 된다. 잠언 25장에 보면 아랫사람이 어떻게 뒷사람, 왕을 섬겨야 할지 말하고 있다. 그것이 6절이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마라.'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일꾼, 보배 받은 자, 대사를 말하는데,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일에 열음 내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 충성된 일꾼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는 것이다. 아랫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5장 12절에 말한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공장식과 같다. 필요하다면 아랫사람을 책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도 복음을 가지고 하면 최고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27장에서는 친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27장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을 달갑게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9절에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고 한다. 17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아름답게, 빛나게 한다고 했다. 이것이 위, 아래, 옆을 보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작가를 찾아와서 물었다고 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톨스토이 선생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내가 잘 했을 때, 행복할 때 어깨를 두드리면서 '잘했어. 정해.' 라고 칭찬해주는 친구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넘어졌을 때, '야, 이

자식이. 네가 내 친구인데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하면 너 죽고 온 세상 죽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충고해 줄 친구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말한다.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겠구나.' 했다. 사람이 아플 때, 굉장히 어려울 때는 와서 눈물 한 방울 흘려주더라. 그러나 정말 행복할 때, 정말 춤추고 싶을 때, 하하호호 웃고 싶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그 기쁨에 참여해주는 사람은 정말 쉽지 않다.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 어쩌면 부모정도 밖에 없을 수 있다. 형제간도 잘 되면 이를 악물고 '저것이 나보다 잘 되네.'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하고 시기하지, '진짜 네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 보다 좋아.' 이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내가 되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포인트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 레임덕이 온 것인가? 레임덕은 다리 저는 오리라는 말이다. 시한이 끝났다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 내 것으로 받고 실천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다.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맞는 것이라도 시간표와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옳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시간표가 있다. 잠25:11에 보니까, 내가 청년 때 많이 외우던 성경구절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 사과와 같다. 적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축복된 것이다. 은쟁반에 금 사과 같은 것이다. 20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노래하지 말라고 한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조롱하는 것이다. 24:17에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오히려 저주같이 여기게 될 것이라고 한다. 경우에 맞게 하라는 것이다. 넓이, 높이, 깊이를 볼 줄 알라는 것이다. 25:21에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고 목 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보복이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 롬12:14절 이하이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없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술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12:14-21의 말씀이다. 27:11에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면서 재앙을 피하는 답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로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라는 것이다. 때때로 보지 말고 같이 보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다. 이것을 보는 지혜를 가지면 원수가 변해서 돕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재앙을 피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97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모든 만남을 성공시키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살기를 바란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다. 이번 램네프트대회 때 받았던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이다. Covenant 언약이다. Vision, Dream 꿈이다. Image, 실현 이 다섯 가지 만남 속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미션이다. 모든 만남을 살리는 만남, 치유하는 만남으로 바꾸도록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복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다. 내가 정복하고 빼앗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더라는 것이다. 그것이 요셉, 다윗, 다니엘, 에스더가 받았던 응답이다. 이 비전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한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살리러 갈 것이라는 생생한 꿈을 꾸기를 바란다. 지금 직장에 가는 분들은 직장에 가서 언어먹으러 가지 말고 살리러 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그 꿈이 구체적인 그림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 갈 것이다. 그것이 image이다. 이것을 마음에 담기를 바란다. 그 꿈을 이루는 가장 가까운, 가장 작은 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가운데서도 '저건 내가 꼭 지켜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다. 맺히게 해주시는 것이다. 잠25:13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특히 램네프트들은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를 바란다. 이번에 할지 안 할지,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나는 모른다. 어떤 램네프트가 말한다. "이 다음에 목사님이 외국에 먼 곳을 가면 내가 비즈니스 끊어드리겠다." 그 말만 들어도 괜히 피곤이 확 풀리는 기분이 든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이번에는 제일 싼 이코노미를 끊고 갔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램네프트가 알았을까. 그 말만 들어도 기쁘다. 그래서 '20대, 30대를 전부 장로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웃음) 타고 싶어서가 아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꿈 꾀야 할 일이 무엇인가. 램네프트들은 선생님 속 그만 썩혀라.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라. 선생님들이 죽어도 못먹겠다고 한다. 선생님 없는 세상을 생각해보라. 부모님 없는 세상을 생각해보라. 모든 램네프트들은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램네프트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선생님, 부모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많은 응답의 역사가, 열매가 맺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기억할 때, '그녀석 잘 되어야 할 텐데.'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가 되어라. 나중에 만나서 열새안고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나는 너를 기대했거든, 너의 싹을 봤거든.'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참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살리는 자로 살기를 발버둥치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을 그 비결을 알려주셨으니, 만나는 자를 살려줄 수 있게 하시며, 치유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며, 인도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